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과 의의: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을 중심으로

황미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전문위원)

목 차

- I. 서론
- II. 19세기 후반기 전라북도 전통 음악계의 경향
- III.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
- IV.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의의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의 전개양상을 통해 의의를 고찰한 논문이다. 다만 본 연구가 당대의 각 종목에 집중하여 의미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기생조합과 권변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글임을 미리 밝힌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전반에 활동하던 근대 5명창 가운데 전라북도 출신은 유성준, 전도성, 정정렬 등이 활동하였다. 특히 향리를 지키며 활동했던 이기권은 정정렬에게 소리를 익혀 홍정택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창들을 배출하는 장본인이었으며, 향리에 머물며 묵묵히 자신의 소리를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에서 근대 전북 판소리사에서 명창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산조는 1세대의 확립을 거쳐 2세대들에 의해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범주에는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신평동류 거문고산조, 편재준류 대금산조, 강백천류 대금산조, 전용선 피리산조, 유동초 통소산조 등이 전개되었다.

풍류는 정음과 고창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기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연주되면서 시기

적으로 1900년대 경성 풍류의 전수, 1920년대 풍류의 부흥, 1930년대 풍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940년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농악 중 한국을 대표하는 우도, 좌도농악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태동하여 발전하고, 정식 공연물로 안착되어 나갔다.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의 전통음악은 기생조합과 권변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근대적인 신식극장에서 공연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연종목으로 정착되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신분철폐에 따라 악공과 창부들은 기생조합과 권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근대적인 예인들의 전통음악 발전에 노력하며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라북도 전통음악은 수많은 예인들을 통한 활동과 호남평야와 같은 풍부한 물산으로 인하여 애호가층이 늘어나 공급과 수요가 갖추어지면서 20세기 후반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전라북도,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

1. 서론

“20세기 초는 전근대적인 사회가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음악 사회 또한 본격적으로 근대적 음악”(이보형 1975, 126-131)을 지향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라디오의 국악방송 송출과 유성기 음반의 등장, 극장식 무대의 상설화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전문 음악인들도 예술가로서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노동은 1995, 661). 이처럼 라디오의 국악방송과 유성기 음반, 신식극장은 중앙과 지역이란 이분적 분리가 아닌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통음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기까지 특정 층의 소유물로 인식됐던 전통음악이 20세기 전반기부터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전개되었던 예인들의 국악 활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중앙과 달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전통음악에 관한 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초래하였고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조망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자료 수집, 정리, 보존 작업은 전북 국악사 연구에 필수적이며, 이를 기초로 하는 20세기 전반기에 전라북도에서 진행되었던 국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전라북도 등의 호남 지역은 이른바 판소리, 농악, 향제 풍류 등의 생성 기반이 되었으며,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전승 지역으로 주목할 만하다. 비록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인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생지이며, 후원이 되어주었던 곳이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 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음악의 터전이 되어준 호남 지역 가운데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수용과 공급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통음악의 터전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세기 후반기부터 열리고 있는 전주대사습놀이와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이 정례화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라북도를 ‘예향’, ‘국악의 본향’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전통음악의 보고’로도 수식되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이전 시기부터 20세기 전반기에 다채롭고 심도 있는 음악 문화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결국 20세기 전반기에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 선보였던 전통음악 문화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시기에 전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음악 문화를 통합적으로 상론한 결과물은 단행본들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국악사를 정리한 출판물들은 『한국민속음악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1)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국악실태조사』(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2), 『전북국악사』(황미연 1998)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북도에서 펴낸 연작물 『전북의 판소리』(전라북도 2003), 『전라북도 마을 지킴이, 정악』(전라북도 2004), 『전라북도 농악, 민요, 만가』(전라북도 2005), 『전라북도 마을굿, 산조』(전라북도 2006) 및 『전북의 음악, 그 신명과 멋』(임미선 2008)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전라북도 음악의 전개 양상을 현지 조사를 통해 상론한 노작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기의 구술사에 의존하고 기존의 연구물을 재인용하였기 때문에 실증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이 글은 기존의 연구물을 기초로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더 확보하고, 이들 사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동안의 오류를 수정하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전통 음악계의 흐름을 밝히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연구 내용은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 등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였거나,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목을 연구 범위로 한정할 이유는 판소리, 산조, 풍류가 당대 사설 교육기관이었던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교과목으로 교습이 되었고, 농악의 경우 각종 무대 종목에서 판소리, 산조, 풍류 등과 동등하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시조창은 1930년대 이병기가 월간지 『학생』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55년까지 완제 시조의 창제가 없었던 것(문현 2015, 34)으로 미루어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는 먼저 20세기 전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기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을 열거하고, 다음으로 20세기 전반기에 관한 기존의 학계에 제시되었

던 성과물을 검토한 후, 근대에 발행된 『매일신보』(每日申報)를 비롯하여 『조선일보』(朝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시대일보』(時代日報), 『군산신문』(群山新聞) 등을 기초로 보충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각종 사료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비롯하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조선일보뉴스라이브러리를 일차적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기적으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전통음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II. 19세기 후반기 전라북도 전통 음악계의 경향

19세기 후반기까지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전통음악은 판소리 명창들의 활약과 악공과 기생들의 교방에서의 활동, 풍류에 관한 악보 편찬, 전복제 산조의 성립으로 구분된다. 먼저 판소리계에서 19세기 후반기 주목되는 인물은 고창 출신의 동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¹⁾이다. “신재효는 향리에서 판소리의 개작과 단가의 창작, 여류 명창 배출 등을 통해 판소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서종문 2011, 17-18)이다. 그의 제자 진채선(陳彩仙, 1847-?)은 고창 출신으로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최초의 여류 명창으로 여성이면서도 웅장한 성음을 내고 기량도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전라북도의 판소리 명창의 활약은 조선 후기 8명창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8명창은 문헌과 연구자마다 8명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박유전(朴裕全, 1835-1906)·박만순(朴萬順)·김세종(金世宗, 1830?-?)·송우룡(宋雨龍)·김창록(金昌祿)·장재백(張在伯, 1852?-1907)·이날치(李捺致, 1820-1892)·정창업(丁昌業, 1847-1919)·이창윤(李昌允)·정춘풍(鄭春風, 1834?-1901?)으로 지칭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출신은 박유전을 비롯하여 박만순·김세종·김창록·장재백 등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전라북도가 조선 후기에 판소리사에서 절대적인 소임을 수행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19세기 후반기 전라북도는 명창들의 월등한 기량을 토대로 판소리가 굳건하게 자리한 절대적인 지역이었다.

특히 1886년 9월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작성한 『연수전하기』(宴需錢下記)는 연회에 초빙한 연행자와 지급 금액에 대한 명세를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는데, 창부인 이

1) 신재효를 비롯하여 이후 명인명창들의 생몰년대는 2012년 송방송이 발간한 『한겨레음악인대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날치, 김세종, 장재백 등 당대를 대표했던 명창 3명과 이들에게 금액을 각기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이날치와 장재백이 각각 50냥이고, 김세종이 100냥을 받았다. 그리고 한양에서 온 경창동(京唱童) 2명과 향창부(鄉倡夫) 4명도 함께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양에서 고종(高宗)이 파견한 악공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는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감사 윤영신(尹榮信)이 아들의 문과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로 치러졌다(이훈상 2003, 148-149). 따라서 당시 전라감영에서 판소리가 연행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전라북도 출신이었던 창부 이날치, 장재백, 김세종이 판소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창부들에게는 감영 등과 같은 관아에 초청 받는 자체가 바로 명창임을 공인받는 일종의 통과 의례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895년 발행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는 전라북도에 설치된 교방(敎坊)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는 전주부(全州府)·무주부(茂朱府)·순창군(淳昌郡) 등에 교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교방은 고려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기생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주로 향악과 당악을 맡았다. 조선 후기 교방에서 노래와 춤, 악기를 익힌 기생들은 관변의 행사와 시정의 유흥공간에도 참여하여 악·가·무에서 중요한 전승 주체가 되었다. 이는 민간의 기록이었던 『연금록』(聯襟錄)에서도 확인된다. 『연금록』은 1859년 9월 13일 호남의 풍류호사(風流豪士)와 절대가인(絶代佳人)들이 연유계(宴遊契)를 조직하고, 이를 결성하게 된 경위, 규약, 구성원의 기초적인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것으로 담양 7명, 순창 7명, 남원 1명, 전주 1명의 기녀가 등장하였다. 또한 객 안민영(安旻英, 1816-1885)이 전국을 주유하면서 각지에 이름난 객과 기녀, 광대들을 만난 광경을 1876년에 기록한 『金玉叢部』(金玉叢部)에도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남원·전주·순창의 기녀 등을 소개하고 있다(권도희 2005, 11-13).

그리고 20세기 이전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다양한 고악보가 발간되었는데 그 범주에는 『양금신보』(梁琴新譜)와 『현학금보』(玄鶴琴譜), 『오희상금보』(吳熹常琴譜) 등이다. 이 가운데 말년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살았던 오희상이 편찬한 『오희상금보』는 한지에 기록된 필사본²⁾이다. 이 고악보들은 조선 중, 후기 전라북도에 풍류의 전문 악공과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풍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금보들은 후대에 이르러 목판본으로도 제작되어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94년 11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선 주재 미국 외교관을 최초로 전라

2) 국립국악원에서 2004년 발간한 『한국학음악학자료총서』 제39집 “오희상금보”에 대한 김우진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감영을 방문해 기록을 남긴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기록에 의하면 전라감영 선화당(宣化堂) 내에서 승전무(勝戰舞)를 추는 기생들의 사진”(조법종 2020, 67)도 있어 전라감영에 소속된 기생들의 춤을 습득하고 연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날 가야금산조는 전승 지역에 따라 전북제(全北制)·전남제(全南制)·충청제(忠淸制)로 나누어진다.³⁾ 그리고 전북제에는 박한용(朴漢用)·이영채(李永采, 1879-1931)·박학순(朴學順, 1830-1898)으로 구분된다. 이들 3명은 전북제 가야금산조의 1세대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천민 출신이었던 창부들이 전라감영에서 판소리를 연행하여 공식적인 명창으로 인정받았으며, 풍류 악보 편찬을 통해 풍류 음악의 저변화에도 이바지하였고, 교방에서 익힌 악·가·무를 특정인들에게 선보였으며, 전북제 산조의 제1세대인 박한용·이영채·박학순에 의해 전개되었다.

Ⅲ.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

19세기 후반기를 거쳐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에서도 중앙과 같이 전통 음악계도 많은 변화가 펼쳐졌다. 1894년 신분 철폐로 인하여 사실상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예인은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본격적인 전문 음악가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가 전통사회에서 근대기로의 이행기란 토대 위에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분야를 사례 중심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의 음악적 상황은 음악공간의 성격, 음악 주최, 음악의 종류 등에 있어 새롭게 변모한다(황미연 2010, 79). 이 시기 행정과 경제적 위상이 행정중심지에서 상업중심지로 변화되었고, 자본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음악가들은 본격적인 예인으로서 행보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이전 시기에 음악을 담당했던 주체들이 20세기부터 권번과 기생조합에서 남성들은 선생으로, 여성들은 기생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주도해 나갔다.

1. 판소리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라북도는 19세기 후반기에도 8명창 가운데 5명이 활동한 만큼 판소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명성은 20세기 전반기에 명맥을

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1973년 발간한 『중요무형문화재 해설』을 참고하였다. 글쓴이는 이보형이다.

유지하였다. 이른바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근대 5명창을 연구자마다 다르게 지칭하지만, 박기홍(朴基洪)·김창환(金昌煥, 1854-1827)·김채만(金采萬, 1865-1911)·송만갑(宋萬甲, 1865-1939)·이동백(李東伯, 1866-1949)·김창룡(金昌龍, 1872-1942)·유성준(劉成俊, 1874-1949)·전도성(全道成, 1864-1942)·정정렬(丁貞烈, 1876-1938)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출신으로 유성준·전도성·정정렬 등이 지칭된다.

유성준은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났지만, 남원으로 이주하여 적벽가와 수궁가에 특장이 있었다.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명창으로 그의 생애에 대해 소략하게 알려졌지만 『남원지』에 의하면 그의 특기는 수궁가를 잘하였는데 수궁가에 있어서 독특한 표현은 도저히 타인이 따라갈 수 없는 가중독보(歌中獨步)였다고 전한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3, 595).

전도성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출신으로 부친 전명준과 송우룡·박만순·이날치·김세종에게 소리를 익혔으며, 중앙 무대의 공연 활동보다는 전라북도 등지에 은거하며 평생을 후진 양성에 임했고,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를 구술하기도 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명창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재연구소 1992, 118). 정정렬은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에서 태어난 부족한 성음을 다양한 음악적 변화로 극복했으며 적벽가와 춘향가에 장기가 있었는데, 더듬으로 춘향가 중 <신연맛이>가 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명창에 대한 상세한 기록물인 『조선창극사』를 저술한 정노식(鄭魯湜)은 1891년 11월 29일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에서 태어났으며, 이정직(李定稷)에게 한학을 배우며 만경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상경과 일본 유학 등을 거친 후 1940년 조선일보에서 『조선창극사』를 발표하면서 근대 초기 판소리 연구가로 활동하였다.

『조선창극사』에 기록된 전라도 창부는 모두 16명이다. 이 중 구체적인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신학조, 박기홍을 제외하면 9명이 전라북도 출신이고, 5명이 전라남도 출신이다. 전라북도 출신 창부 중 조기홍(趙奇弘)·성민주(成敏周)·유공렬(柳公烈, 1859-1934)·전도성·신명학(申明鶴)·송업봉(宋業奉)·유성준 7명이 동편에 속했고, 염덕준, 정정렬 2명만 서편에 속했다(권도희 2003, 123).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1920년대까지 성공한 창부들의 음악적 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출신 판소리 명창들의 중앙 무대에서 활약상도 알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이전까지 중앙 무대에서 성공한 명창 중에는 전라북도 출신이 가장 많았던 점을 증명해 준다. 비록 이와 같은 사료는 중앙에서 활동상이었지만, 이 명창들의 학습지 터전은 전라북도

였다.

이와 별도로 이 시기에 전라북도 판소리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는 이기권(李起權, 1905-1954)을 들 수 있다. 이기권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정렬에게 소리를 익혀 홍정택(洪貞澤, 1921-2012)을 비롯하여 김유앵(金柳鶯, 1927-2009)·강종철(姜鍾哲, 1923-)·김원술(金洵述, 1921-?)·최난수(崔爛洙, 1931-2013)·성운선(成雲仙, 1927-1998)·이일주(李一珠, 1936-2023)·홍용호·이운학·양종만에게 전수하였다. 이들 가운데 홍정택·김유앵·최난수·성운선·이일주 같은 사람들은 20세기 후반기에 전라북도 시도 무형유산 제2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기권은 1940년 5월과 7월 두 차례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단가 <적벽부>와 <숙영낭자전>, <백발가>, 그리고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을 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1940년 후반기에 군산으로 이주하였으며, 1941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양성을 시작하였는데, 익산을 중심으로 군산·정읍·김제 등지를 두루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점과 향리에 머물며 묵묵히 자신의 소리를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이다(신은주 2020, 431-432). 그는 20세기 후반기에 전라북에서 활동하였던 중견 소리꾼치고 이기권에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 자신이 명창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며 전라북도 판소리계에 미친 그의 영향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여류 명창으로 김소희(金素姬, 1917-1995)를 손꼽을 수 있다. 김소희는 1917년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에서 태어나 맑고 고운 애원성의 독특한 음색을 지닌 천부적인 예술가였다. 그는 13세 때 남원명창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15세부터 송만갑·정정렬·박동실(朴東實, 1897-1968) 등 명창들에게 판소리를 사사하였다. 1937년 중앙 무대에 진출하여 창극좌에 입단했으며 빅타레코드의 전속으로 정정렬·임방울(林芳蔚, 1904-1961)·이화중선(李花仲仙, 1898-1943)과 춘향가 전편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20세기 전반기 중앙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활동하였던 김여란(金如蘭, 1907-1983)은 그의 나이 17세에 정읍권번(井邑券番)에서 정정렬에게 1년간 판소리를 공부하기도 하였으며 경성방송국의 국악방송에서 적벽가와 숙영낭자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출신의 남성과 여류 명창들은 판소리 분야에 특출난 기량을 통해 중앙 무대 진출과 향리를 지키면서 제자 양성을 통해 판소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2. 산조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던 산조는 20세기 이후 다양한 발생 배경을 가진 다채로운 음악을 수용하면서 경향 간의 구분 없는 음악 문화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지방에서 파생된 산조도 증양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초에는 창우 집단의 창부뿐만 아니라 창우 집단 출신들의 지도를 받은 기생들이 산조의 연주자로 부각”(권도희 2003, 122-123)되었다는 점은 산조의 다양성과 대중성에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다양성과 대중성이 폭넓게 전개되었던 20세기 전반기에 있어 권변과 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들의 산조 발전의 기여는 상상외로 확대되었다. 이를테면 전주권변과 남원예기권변에서의 가야금과 거문고는 기악의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들 소속의 학습 선생들이 김창조(金昌祖, 1856-1919) 같은 명인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황미연 2010, 133)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김창조는 1916년 당시 전주예기조합(全州藝妓組合)과 전주퇴기조합(全州退妓組合)에서 활동하였다. 1916년 김창조는 전주에서 안기옥(安基玉, 1894-1974)에게 가야금을 전수하였다(양승희 2001, 75-96). 전주는 그만큼 당시 최고의 명인들이 활동하고 역량을 전수했던 국악의 고장이었다. 그리고 김창조의 전주 생활은 생에서 말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한 가야금산조 역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주에서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전수한 안기옥은 1916년 남원에서 조직된 화순 협률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가야금산조로 일가를 이룬 정남희(丁南希, 1905-1984)도 그의 나이 16살에 전라북도 협률사에서 활동하였다(송방송 2003, 675).

특히 이 시기에 전라북도는 독창적인 산조라는 장르에서도 일가를 이루게 된다. 이 시기에 전라북도 출신 연주자의 이름을 딴 산조로 강백천(姜白川, 1989-1982)류 대금산조, 전용선(全用先, 1890?-1965)류 단소 산조, 박한용(朴漢用)류 가야금산조, 이영채류 가야금산조, 김윤덕(金允德, 1918-1978)류 가야금산조, 신쾌동(申快童, 1910-1977)류 거문고산조 등이 있었다. 이들 산조는 그 발생과 학습 과정을 따져볼 때,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지닌 산조다(전라북도 2006, 263). 이들 산조 가운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강백천류, 박한용류, 이영채류, 김윤덕류 신쾌동류는 산조사에 있어 큰 업적을 남기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하였던 명인들은 한 악기에 방점을 두고 연주와 교육을 병행하였고, 또 한편으로 많은 악기에 두루 능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대표적 가야금산조는 박한용, 이영채, 박학순을 조종(祖宗)으로 하고 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77). 박한용과 이영채, 박학순의 생애와 음악 세계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들

에게 배운 김종기, 신관용, 신쾌동이 연주되었다. 김종기는 생몰연대와 출생지에 관해 다양하고, 가야금뿐만 아니라 거문고산조, 해금산조 등에 뛰어났다는 사실이 경성방송국 출연과 유성기 음반에서 확인되었다. 김종기는 주로 지방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그의 제자로 김송희·장월중선(張月中仙, 1925-1999)·김삼태(金三泰)·방금선(方錦仙)·정금례 등이 있다(이지수 2024, 124). 이후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원(朝鮮聲樂研究會員)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업적을 후대에 남겼다.

신관용(1912-1961)은 호적 명이 신관영(申寬永)이며 전라북도 김제군 성덕면 성덕리 고현마을에서 태어났으며, 15살 때 김제 만경에서 이영채를 만나 풍류·산조·병창을 배웠으며 전주·군산·남원·정읍 등지의 권번에서 가야금을 신쌍암·강순영·송창섭·이기열(李其烈, 1919-2000)·주선희·박설행에게 가르쳤다(황미연 1994, 14-17).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계면조로 시작하여 계면조로 마무리하는 악곡 짜임새로 전 악장에 걸쳐 계면조의 비중이 매우 크고, 즉흥성이 강하고 반복 선율이 많아서 전북계 가야금산조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준다(김성민 2018, 229-231). 그리고 박학순은 신쾌동에게 가야금산조를 전수하였지만, 지금은 단절된 상태다. 신쾌동과 강백천은 20세기 후반 기인 1967년과 1968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예능 보유자로 각각 지정받았다.

가야금산조와 더불어 거문고산조에서 일가를 이룬 신쾌동(申快童, 1910-1977)은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에서 태어난 거문고 연주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거문고 향제줄풍류 가락과 거문고산조, 그리고 독창적인 거문고 병창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로 한국음악사에 기록되고 있다.(변성금 2009, 26) 대금산조 연주자 강백천은 남원시 용정동에서 판소리 명창 강도근(姜道根, 1918-1996)과 가야금산조 명인 강순영(姜順승, 1927-)과의 집안 간으로 국악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0, 14). 그의 산조는 김동진(金東鎭)에게 전수되었다.

이밖에 전라북도 산조의 외형과 내실을 넓혀준 전북 출신 또는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용선(추산) 단소 산조, 유동초(柳東初, 1936-?) 통소산조, 편재준(片在俊, 1913-1976) 대금산조가 후대에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전용선은 1890년 정읍군 입암면 천원리에서 태어나 1965년 전주 태평동에서 사망하였다. 전용선은 향제 줄풍류와 단소 산조를 같은 악기로 불었다고 한다. 특히 전용선은 단소로 풍류와 산조를 능히 연주했지만, 대금·통소·양금·피리·해금에 능통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이용구 2015, 17-20).

유동초는 1937년 통소연주로 산조와 봉장취 두 곡을 유성기 음반에 녹음한 인물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으며, 전남 장성군 북상면에 태어났지만, 고창·익산·김제 등 주

로 전라북도에 터를 잡고 활동하였다(조석연 2010, 10-11). 편재준은 산조에도 뛰어났지만, 풍류에도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풍류편에서 상론하겠다. 결국, 조선 후기를 거쳐 20세기 전반기에 산조란 장르에서 전라북도는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예술 영역을 구축하였다. 외적으로는 당대 명인들이 전라북도로 이동하였으며, 내적으로 다양한 민속악의 흐름이 대중을 향해 펼쳐지면서 근대적인 풍류를 형성해 나갔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산조가 풍성하였던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비옥한 지역적 조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화에도 소비와 공급, 그리고 수요 추세가 있는 만큼 전주를 비롯하여 김제, 이리, 정읍 등 상업중심지에서 산조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악기의 산조가 연주될 수 있었던 것은 풍류방 혹은 율계의 발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산조 명인들은 산조뿐만 아니라 풍류에서도 일가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임미선 2008, 135). 이처럼 전라북도에서 전개된 20세기 전반기의 산조는 다양한 악기의 연주를 통해 명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중앙 무대 진출과 향리에 머물면서 산조 전승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산조사에 있어서도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풍류

향제 풍류를 대표하는 지역이 전라북도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에서 풍류의 전개 양상은 이전 시대의 전통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류방을 중심으로 연주되었던 풍류는 전문 음악가들과 비전문가 음악가들로 나뉘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민속 음악인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 풍류를 후대에 전승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각 지역의 부호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연주와 함께 전문 음악인들을 영입해 자신의 수양덕목이었던 풍류를 강화하는 양상이었다.

이들테면 1927년 전주에서는 『동아일보』 전주지국의 신사옥 낙성식을 기념하기 위해 공연이 전주공회당⁴⁾에서 개최되었는데, 전주권번의 예기들이 출연자로 참여하였다. 연주곡목으로 <풍류양금현금>(風流洋琴玄琴)을 선보일 정도로 풍류는 풍류객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권번의 소속 기생들에 의해 연주되는 경향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고창 지역에서도 풍류가 공연의 정식 곡목으로 선정돼 무대에

4) 본사 신사옥 낙성을 기하야-본보 전주지국에서도 차(此)를 의미있게 기념식을 거행코져 본 지국에서 주최로 연주회를 개최한다 함을 기보한바와 가치 지난 30일 오후 8시부터 전주 공회당에서...(중략)...전주권번 예기들은 총출연하야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승무, 검무, 풍류양금현금, 가야금, 만고영웅, 만고강산, 소상팔경, 창가, 잡가 독창, 잡가, 일동이 이상과 같이 흥행 때에...(하략)...(『동아일보』, 1927. 05. 03.).

오르기도 하였다. 1928년 8월 7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북고창청년동맹무장지부⁵⁾에서는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풍류>, <삼현>, <가금병창>(歌琴竝唱) 등 조선구악(朝鮮舊樂)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1932년 전주에서는 이기태(李起兌)와 서성칠(徐成七)을 중심으로 한 정악구락부(正樂俱樂部)가 창설되어 정악을 부흥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매일신보』 1932년 9월 5일 자에 의하면 전주의 유지들은 고대로 내려오는 조선 정악이 쇠퇴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갖고 시내 팔달정 18번지에 있는 전주시내의 전(前) 요리점인 동래각적(東來各跡)에서 정악구락부를 창설하고 성대한 피로회를 개최⁶⁾하였다. 정악을 고아한 정취로 표현함으로써 아정한 선비 음악임을 직시하고 정악구락부 창립을 통해서 정악복원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한 1938년 개국 된 이리방송국(裡里放送局, 현재 익산)을 계기로 전라북도 풍류 문화도 확산하기에 이른다. 김무규(金茂圭, 1908-1994)·김용근(金容根)·신쾌동(申快童, 1910-1978)은 이리방송국 개국 초청으로 국악 연주회를 개최하였다(이규원 1995, 39).

전라북도 시·군 가운데 향계풍류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곳이 정읍(井邑)이다. 향계풍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전계문(全桂文, 1872-1940)과 전계문에게 풍류의 모든 것을 전수하여 이를 발전시킨 전주산이 정읍에 터를 두고 있었다. 정읍풍류는 현재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리풍류와 구례풍류의 초석이 되었다. 이리풍류의 기동인 강낙승, 황상규와 구례풍류의 김무규의 스승이었던 전주산이 모두 정읍 초산율계(楚山律契)의 율객들이었던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정읍에서 풍류를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과 율계는 정읍과 아양계(峨洋契)로 1928년 김기남(金箕南, 1889-1950)이 조직한 모임이다(남상숙 2005, 34). 이와 별도로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의 풍류방은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익산의 벽두계(임미선 2003, 124), 1910년 후반 고창 성내 3.9회(고창군지 1992, 1,240-1,242) 등이 적극적인 연주 활동을 견지해 나갔다.

그리고 전라북도 풍류에 있어 좌장 역할을 한 전계문은 1872년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 49번지에서 태어나 1940년에 사망하였다. 본적에 무(巫)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무계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계문은 대금·가야금·거문고·양금·피리 등 모든 악

5) 창립기념음악-전주고창청년동맹무장지부에서는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순조선음악회를 동회관에서 거일월이일 양일간에 개최하였는데...(중략)...미묘우아한 풍류, 삼현, 가금병창 등 조선구악의 특색을 발휘하여 관중일반에게 많은 감흥을 주었으며...(하략)...(『동아일보』, 1928. 08. 07.).

6) 정악구락부 창설-전북유지 서성칠, 이기태씨는 고대로부터 청신아취(淸新雅趣)한 조선 정악의 쇠퇴하여 감을 일대유감으로 생각하고 시내 팔달정 17번지 전 요정 동래각적에서 정악구락부를 창설하고 지난 4일 정오부터 재전 유지등을 다수 초청하여 성대한 피로회를 개장하였다고 한다(『매일신보』, 1932. 09. 03.).

기에 능통하였으며, 춤에도 일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근대 조선 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성준(韓成俊, 1874-1942)도 북가락과 춤사위를 전계문에게서 배웠으며, 전추산·김용근·신달용(申達用)·정경태(鄭炯兌, 1917-2003)가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로부터 전계문의 예술세계를 가늠(전북대학교박물관 1992, 191-203)할 수 있다. 전계문의 대금 풍류는 정경태의 『국악보』에 실려 있어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단소산조의 창시자로 전추산도 풍류에 공을 들인 인물이다.

이와 같이 명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연주되었던 풍류의 확산은 악보발간으로 인하여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기태는 1932년 전주도서인쇄주식회사에서 『악서정해』(樂書正解)를 발간하였다. 금속활자본 1책으로 나오는 이 악보는 신문 지상에 광고⁷⁾까지 수록하며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상령산·중령산·세령산·제지·상현·세환입·하현·염불·타령·군악·계면·양청·우조도드리 등 총 13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스름과 굿거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안의 부풍율회(扶風律會)는 1947년 9월 7일 임기하·김학운·허병환·김병두 등 4명이 모여 일제 암흑기에 전래음악인 우리 음률이 쇠잔하였음을 안타깝게 여겨 그 흥창을 위하여 동호인의 모임체인 부풍율계(扶風律契)를 발기하고 창립하였다(부풍율회 1997, 35). 그리고 전주예기권번은 1926년 8월 전주 천양정에서 7천여 명의 관중이 관람하는 공연에서 풍류를 공연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전라북도에서의 풍류는 지역별로 전문 음악가들과 비전문 음악가들로 나뉘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민속 음악인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 풍류를 후대에 전승한 것이고, 비전문가 집단에 학습 선생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각 지역의 부호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연주와 함께 전문 음악인들을 영입해 자신의 수양덕목이었던 풍류를 강화해 나갔다(이예원 2020, 336).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풍류가 쇠퇴한다는 판단으로 인하여 중앙의 악공과 율객들을 초빙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실례로 1919년 전주에서는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풍류계를 조직하고 중앙의 율객과 악공을 초빙⁹⁾하여 풍류를 습득하였다. 따라서 1908년경 전주의 풍류는 경성 풍류와 전주풍류가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류를 습득

7) 신간소개, 악서정해부서출보 전북 전주군 본정 이정목 전주도서인쇄주식회사 발행정가 1원, 진영경성 517번(『동아일보』, 1932. 06. 25.).

8) 전아(典雅)한풍류성(風流聲)과 위관경(偉觀呈)한폭죽화(爆竹花)는 칠천군중의 시팅을 놀래여 전주시민 남량위안(全州市民納涼慰安)...(중략)...전주예기권번(全州藝妓券番)의 후원을 어더 가지고 풍경이 가절하고 청량(淸涼)하기로 유명한 전주 다가공원 천양정(多佳公園穿楊亭)에서 독자시민위안남량대회(讀者市民慰安納涼大會)를 개최코저...(중략)...전아(典雅)한 풍류(風流)를 비롯하여 명곡절창과 찬란한 무대에 일반관중은 황홀하야...(하략)...(『조선일보』, 1926. 08. 10.).

9) 노인풍류-전주군에서는 노인들이 풍류계를 조직하고 거금액을 모집하야 율객과 악공을 경성에서 초빙하여 백운정에서-(하략)...(『대한매일신보』, 1908. 06. 17.).

한 연주자들은 당대의 명창은 물론 전주권변 소속 기생들과 함께 연합공연¹⁰⁾도 가졌다. 특히 이 시기에 전주, 이리, 군산, 정읍, 고창 등지에는 정악구락부, 구악동호회 또는 정악회란 이름으로 풍류를 공연하기도 하였다.¹¹⁾

특히 전라북도 풍류는 중앙에서의 율객을 초빙해 강습하는 한편,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그리고 기생들의 합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31년 17장의 한지 필사본으로 발간된 『아양계안』(峨洋契案)은 아양정을 중심으로 김용근·박흥규·황상규·유종구(柳鐘九, 1920-1984)·한갑득(韓甲得, 1919-1987)·한승호·신달용 등의 전통음악인과 정읍예기조합에 소속되었던 박운향·정연옥·최계월·최옥희·임화선·김난초·김이화·최유색 등의 기생이 참여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박대현 2015, 127-139). 이는 1930년대 정읍 지역에서 풍류는 풍류객과 기생들이 풍류 모임을 발족하고 함께 연주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풍류계에 참여한 기생들은 독자적인 무대에서 풍류를 연주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조선일보 전주지국이 독자와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을 1926년 전주 천양정(穿楊亭)에서는 관중 칠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으로 개최하였는데, 전주예기권변의 후원으로 풍류¹²⁾가 선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천양정은 풍류 등의 중요 교육기관이자 연행기관으로 추론된다. 이는 천양정이 원래의 궁술장 전용이었지만, 궁술과 더불어 음악, 서화의 교육 및 실행기관으로 변화¹³⁾되었기 때문이다.

4. 농악

한국 근대사에서 농악을 위시한 전통 공연예술은 20세기 초 옥내무대의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2년 중앙에서 협률사가 설립되

10) 전주음률연주-전주정악계 주최 동광신문사 후원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전주공회당에서 조선 고유인 음악연주회를 개최한다는데, 시조, 양금, 가야금, 대금, 단소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망라하고 가수는 박기순을 비롯하여 그 외 명창 수십명과 전주권변의 기생이 총출연하야...(하략)...(『매일신보』, 1931. 04. 23.).

11) 전주-정악구락부 창설, 『매일신보』. 1932.9.15. 이리구악동호회, 『동아일보』. 1929.3.1. 군산정악회, 『군산신문』. 1949. 05. 06. 정읍정악회, 『동아일보』, 1939.11.01. 신문자료에서 알 수 있다.

12) 전아한 풍류성과 위관정한 폭죽화는 칠천군중의 사령에 놀래여 전주시민납량위안...(중략)...전주예기권변의 후원을 어더 가지고 풍경이 가절하고 청량하기로 유명한 전주 다가공원 천양정에서 독자시민위안 납량대회를...(중략)...전아한 풍류를 비롯하여 명곡절장과...(하략)...(『조선일보』, 1926. 08. 10.).

13) 천양정(穿楊亭)을 수선(修善) 사용범위(使用範圍) 확대-전주명승(全州名勝) 다가공원(多佳公園) 일우(一隅)에 종래로 궁술(弓術) 전문장이 되어잇든 천양정의 사용범위를 확장하야 사회적 일(一) 기관을 설치코저 김희순(金熙舜) 외(外) 제씨(諸氏)의 발기로 저간알선(這間斡旋)한 경로가 일반의 찬동과 이천여원 의연금을 득(得)하야 목하건물(目下建物)의 대수선(大修繕)을 행(行)하는 중(中)인데 불안간 준공(竣工)되면 동소(同所)에 궁술(弓術), 음악(音樂), 서화(書畫) 삼부(三府)를 치(置)하고 각부(各部)에 대(對)한 연구(研究)와 교련(敎鍊)을 실행(實行)하는 순조선인구락(純朝鮮人俱樂部)의 일단체(一團體)를 조직(組織)할 계획이라고(『동아일보』, 1925. 09. 27.).

면서 가면극이나 인형극 등의 민속극이 야외 공연장에서 실내의 무대 공연장으로 이전되었고, 농악도 마당의 놀음판이 아닌 무대식 공연장인 실내극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협률사가 폐지되고 전통연회를 공연하는 지방 유랑극단이 운영되었는데, 농악도 이 협률사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되었다.

전라북도의 농악은 크게 좌도와 우도로 유형화되어 공연 형식과 내용의 차이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왔다. 좌도농악은 동부산간지대인 무주·진안·남원·임실·순창 등의 지역에 전승되어 온 농악을 말하며, 우도농악은 서부평야지대인 익산·김제·부안·정읍·고창 등의 지역에서 전승된 농악을 총칭한다. 20세기 전반기 민중의 큰 힘으로 각인된다. 이를테면 우도농악은 1910~1920년대에 들어와서 김도삼, 김홍술, 부안의 김바우 등의 상쇠들에 의해 발전기를 맞게 된다(김명곤 1981, 116). 정읍우도농악은 호남 우도농악의 중심을 이루면서 인근 지역인 김제·부안·창·옥구·군산·익산 등지의 농악을 일찍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전라북도 우도농악에서 정읍이 중심을 이루어 발달하고 새로운 농악대의 조직과 활동을 이루게 된 것은 보천교(普天敎)의 민족운동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임미선 2014, 321).

이 시기에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보천교에서 농악 활동은 두드러진다. 보천교 차경석(車京石)은 농악 혹은 풍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차경석이 풍물을 좋아하게 된 배경은 스승인 강증산(姜甌山)이 농민들의 음악이었던 농악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한 것이 주효했을 것이다. 차경석은 이 시기 풍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보통 15명 또는 20명으로 구성되는 악단의 구성을 100여 명까지 올려 대규모의 농악단을 조직하였다. 1930년과 1931년 큰 곳을 열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경찰마저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차경석은 이렇게 농악에 큰 관심을 보여 몇 가지는 자신이 직접 지도하였으며, 전국에서 장구와 상쇠 잭이 등을 뽑아 서로 기예를 겨루게 하는 곳을 자주 열기도 하였다(최준식 2006, 245).

그리고 임실필봉농악은 1920년대 박학삼(1884-1968)이라는 상쇠가 임실군 소재지 마을에서 필봉리로 초청되어 이주해 옴으로서 오늘날의 판굿, 걸립굿 등과 같은 수준이 높은 마을굿의 기틀을 갖추었다(전라북도 2004, 18). 그리고 1920~1930년대 남원의 독우물굿은 유랑 예인이었던 남원의 상쇠 전판이(田板伊, 1689-?)를 만나 전문적인 농악으로 발전하면서 걸립농악으로 변모해 갔다. 전판이는 일제강점기에 매우 이름난 상쇠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연행되었던 농악은 우도와 좌도라는 지역적 구분도 있고 음악적 차이와 진법의 구분도 있지만, 1920년대 이후 이름난 농악인들이 좌도와 우도 양 지역의 농악대에서 활동하거나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였고, 좌도에

서 우도로 활동 영역을 옮기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좌, 우도농악의 교섭은 이미 20세기 전반기부터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미선 2014, 334-339).

이러한 농악은 1930년 신문 기사에서는 다른 국악 종목과 함께 공연 종목으로 안착하여 갔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면 상후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추석을 맞아 유명 농악인과 일류 명창 명기 수십 명을 초빙하여, 가곡, 농악, 줄타기, 땅재주, 기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농악대회¹⁴⁾를 열었다. 이는 이미 권번의 기생들과 농악수들이 한 무대에 오르며 공연 종목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전라북도에서 성행하였던 농악은 국악원과 중앙신문 공동 주최로 1946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창경원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특등을 남원, 진안, 장수 등 동부지역이 중심이 된 농악단이 수상하며, 연기상과 개인상도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라북도 농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였다. 이어 1947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악원과 미군정청 문교부 예술과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도 전라북도팀으로 출전한 정읍팀이 최고상인 특등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이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농악은 대규모의 연희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운동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34년 김제군 만경 청년들은 정초(正初)놀이를 이용해 농악을 하면서 13원 50전을 모아 기근도탄에 빠져 있는 울릉도 설해(雪害) 이재민에게 지원하였다.¹⁵⁾ 따라서 농악도 20세기 전반기에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갖패 형성과 전문가 집단들의 무대화가 동시에 전개되었다.

IV.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의의

한국음악사에서 20세기 전반기는 다른 분야처럼 많은 변화로 인하여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었다.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에 있는 시기와 더불어 근대음악사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 문화를 등장시킨 하나의 전환적 시기였고, 오늘날 음악적 상황의 뿌리와 직접 관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송방송 2003, 111). 근대에 진입하면서 중앙과 지

14) 상후리(上後里) 농악대회(農樂大會) 전북 완주군 삼례면 상후리 농촌진흥회에서는 금번 중추가절을 이용하여 농악의 율(律)을 발휘하기 위해 전선에 유명한 농악선수와 일류명창, 명기 수십여명 초빙하여 농악, 가곡, 줄타기, 땅재주 기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농악대회를 추석날부터 5일간 개최한다(『동아일보』, 1937. 09. 24.).

15) 김제군 만경 청년들은 금번 구역정초놀이를 이용하여 농악을 올리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마당밧이를 하여 한푼, 두푼씩 모아 일금 13원 50전이란 돈을 기근 도탄에 빠져서 급한 구호를 부르짖고 있는 울릉도 설해 이재동포에게 약소하나마 구제에 보태 달라하여 지난 22일 본보 김제지국을 거치어 본사에 의뢰하여 왔다(『동아일보』, 1934. 02. 27.).

방의 전통음악 환경은 이전 시대와 다른 양상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에는 행정 체계의 변화도 일조를 하였다. 1895년 발행된 『호남읍지』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행정체계는 부(府)·목(牧)·군(郡)·현(縣)으로 구분되었다. 전주부에 교방과 무주부에 교방청, 순창군에 교방이 각각 설치되어 관의 주도로 다양한 전통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원부·전주부·무주부에 기생들이 각각 6명, 34명, 26명이 상주’(이규리 1987, 13-20)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전통음악이 연주, 전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은 1914년 도시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국을 부와 군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행하고 전라북도에 총 1부 25군을 설치하였다.¹⁶⁾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과 신분 철폐로 인하여 관아에서 활동했던 창부와 관기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 후기 전통음악을 유지하면서도 개화기라는 새로운 전통음악의 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20세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의 전통음악이 확산하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전라북도의 음악적 상황은 음악공간의 성격을 비롯하여 음악주체와 음악 종목 등에 있어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앞서서도 서술하였다. 앞에서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을 중심으로 서술한 결과, 명인, 명창, 명창 등에 의해 각 분야에서 전승되고 있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전 시대에 국악을 전승했던 악공과 기생들은 면천에 따라 판소리 명창의 전승과 지역적으로 전북제 산조의 정립, 그리고 풍류방의 성격 변화와 농악의 무대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판소리와 산조 등의 악공과 기생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풍류는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전주지역에서는 20세기 초반에 경성의 악공과 율객을 초청해 학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악은 지역 간의 이동과 신흥종교의 만남을 통해 무대화와 상설화가 병행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의 국악계는 판소리, 산조, 풍류, 농악 분야에서 두드러진 전승과 활동을 통해 국악의 본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근대라는 자본주의 구도가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구도 속에서 창우와 광대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판소리는 기생조합과 권번의 학습 선생, 또는 각종 협률사에서 소속되어 이전 시대보다 자유롭게 판소리를 전승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전주는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예기조합을 설립, 운영하면서 광주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⁷⁾

16) 1914년 3월 1일부로 새롭게 구성된 전라북도의 부·군 명칭은 군산부·전주군·금산군·진안군·무주군·용담군·장수군·진안군·고산군·익산군·용안군·함열군·여산군·임피군·김제군·만경군·태인군·임실군·부안군·정읍군·고부군·무장군·고창군·홍덕군·순창군·남원군·운봉군으로 구성되었다(『조선전라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241).

매일신보사는 1917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독자위안회를 광주에서 4일, 목포에서 4일동안 진행하였는데, 이때 전주예기조합의 기생 11명을 초청하여 개최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전라남도에는 기생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예기조합의 기생들이 뛰어난 기량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판소리 명창들은 자신의 소리 텃밭이었던 향리에 머물면서 판소리를 전승하기도 하였지만, 19세기 후반기부터 호남 광대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판소리를 전파하였고, 특정 가계 및 스승의 소리를 익혀 전승에 이바지함으로써 전라북도의 판소리가 다른 지역과 달리 단단한 전승 기반을 이어가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산조의 경우는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통소산조, 단소 산조가 이 시기에 전라북도를 주요 무대로 하면서 활발하게 연주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풍류방이 율계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산조 연주자들은 산조뿐만 아니라 풍류에서도 일가를 이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풍류방이 음악가들에게 일정한 장소로 마련되면서 음악 발전의 중요 공간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풍류방의 구성원들 가운데 비전문가도 있었지만 서로 교섭하며 산조와 풍류에 일정한 소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당대 음악가들은 소리와 악기, 춤에 모두 능했기 때문에 악·가·무 일체를 통해 음악 활동을 견지해 나갔다. 이를테면 김소희의 경우 판소리는 물론 산조, 정가, 시조, 춤에 뛰어났으며, 전경환의 경우처럼 산조 연주자이면서 상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연주자들 가운데 전라북도를 지킨 산조 연주자는 박한용·박학순·전계문·이영채·신관용·유동초·전용선·편재준 등이었고, 신쾌동과 김종기, 김윤덕은 전라북도에서 산조를 익힌 후 중앙 무대에 진출하였으며, 강백천은 부산으로, 강순영은 진주에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명창, 명인, 명무가 이 시기에 교육하고, 활동하였던 주요 기관이 바로 기생조합과 권번이다. 1942년 동아경제시보사에서 펴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士組合滄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는 1939년 전주권번, 1937년 군산소화권번, 1939년 남원예기권번이 각각 설립 운영되었다.(황미연 2010, 94-95). 그런데 1930년대 이전부터 전라북도의 기생조합과 권번이 설립, 운영되어 국악의 산실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대에 발행된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되어 있다.

17)...(상략)...이번에 매일신보 지국 주최로 전주예기 십여명을 불러 광주와 목포에 독자위안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에 묻혀있는 그 전 기생들이 개탄히 생각하고 내 고을 위안회에 타관 기생이 출연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중략)-전주 기생과 일상 경쟁이 일어나 서로 기술을 다투었으나 전주 기생은 다년 학습 가부가 막힐 것이 없으나 광주 기생은 준비가 없는 까닭이라 하여 광주의 유력한 정인준 씨를 앞장 세우고 기생조합 설치를 받기하였는데...(하략)... (『매일신보』, 1917. 06. 17.).

이러한 권번은 안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수많은 공연을 선보였고, 밖으로 중앙 무대에 진출해 전통음악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매일신보』 1915년 9월 8일에는 전주예기조합이 공진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갑반의 명기 향란 등 12명을 뽑아 가무 및 구연극을 한 달 이전부터 연습하는 중이며 준비가 끝나는 말일경에 서울로 출발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전주권번 소속 기생들은 중앙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향토예술을 부흥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매일신보』 1935. 05. 17.). 지방의 권번에 소속된 기생들의 중앙 무대 진출은 소속 권번을 중앙에 알리고 자신의 기량을 검증받음으로써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군산에는 군산예기권번(『시대일보』 1924. 06. 10.)이 1924년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군산소화권번은 그동안 연구하여 오던 무용과 가극을 널리 일반 인사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군산극장에서 무용가극대회를 개최했는데, 40여 명의 애기가 무대에 올랐다(『조선일보』 . 1932. 01. 21.). 이처럼 군산지역에서도 권번을 통해 전통예술이 교육되고 무대화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원지역에서도 1926년 기생조합과 권번이 설립되었다. 남원기생조합과 남원권번 소속 기생들은 전라남도 구례 화제를 접하고 화업사에서 후원연주회를 열어 대성황을 이루었다(『시대일보』 1926.4.29.). 또한 지금의 익산인 이리에서도 예기조합이 1929년 처음으로 설립되어 간부들의 열성적인 의지와 지방 유지들의 후원으로 이리좌에서 연주대회를 열어 크게 성공하게 된다(『동아일보』 1929. 05. 27.). 이와 함께 정읍의 예기조합은 『중외일보』 1928년 8월 20일 자에도 나온다. 이밖에 부안예기조합도 이재민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4. 03. 08.).

실례로 전주권번에서 활동하였던 학습 선생으로는 가야금 김삼태, 거문고 신쾌동, 통소 유동초, 춤 정자선, 정형인, 정모란과 판소리에 장판개, 김준섭, 신영채, 송업봉 및 시조 최일원, 서화 김희순 등이다. 전주권번에서 학습 선생으로 볼 때, 학습 과정에서 교과목으로도 판소리를 비롯하여 단가, 잡가, 시조가 있었으며, 기악으로 가야금, 거문고, 통소 및 춤에 있어서 승무, 검무, 북춤, 살풀이춤이 교육되었다(황미연 2010, 123). 이처럼 기생조합과 권번은 이 시기에 전통음악을 교육해 전승하고 무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자들은 권번의 학습 선생으로 기생들은 예인으로 조합과 권번에 거주하며 사제지간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신분 철폐로 인하여 이 시기에 남성, 여성 음악가들은 본격적인 대중 예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공간이 기생조합과 권번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또한 남원기생조합은 광한루 서문 쪽에 있었으며, 소리 선생으로 이화중선의 초기

선생이었던 장득진과 김정문(金正文) 명창의 아버지 김준팔, 그리고 유성준 명창의 아버지 유경학 등이 있었다. 김준팔은 농악선생으로, 유경학은 소리와 민요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기생으로는 이현순과 이화중산·이중선·조기화·강국향·조영숙 등이 있었다(김용근 2008, 772-776). 군산소화권변에는 학습 선생으로 판소리의 장관개·배설향·송업봉·이기권과 춤의 신고자 등이 있었다. 특히 김원술은 1940년대 초반 군산 권변에서 이기권에게 숙영낭자전을 배운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119). 그리고 정읍예기조합에서도 학습 선생으로 정자선·정정렬·이기권·전계문 등이 활동하며 판소리와 춤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119-129). 이처럼 이 시기에 권변에서 학습선생을 활동하였던 명인, 명창, 명무들은 한 지역에만 거주하지 않고, 전라북도 일원을 돌아다니며 거주, 교육하였고, 중앙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학습 선생과 기생들은 대중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송국에도 출연한다. 전주권변 기생들은 KBS 전주방송총국 전신으로 1938년 10월 1일 개국 된 이리방송국을 축하하기 위해 1939년 1월 26일 특별공연했다. 권변 기생 이름과 연주하였던 곡목은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개국을 축하하는 전주권변 소속 기생들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KBS전주방송총국 1988, 250).

더욱이 이 시기에 공연 장소의 변화가 전통음악의 변모에 일조하였다. 조선 후기까지 전라감영과 같은 관아(官衙)와 사가(私家) 및 경승지(景勝地)에 한정되었던 공연 형태는 고신문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주공회당, 전주좌, 이리좌, 이리극장, 군산 회소관, 정읍정악회, 고창청년회관 등 신식극장에서 개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과 만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중성을 향한 공연형태를 확보하고 전개되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와 이전 시기인 19세기 후반기의 전통예술을 교육하고 연행했던 지역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세기 후반기까지 교방이 설치된 지역은 전주부와 무주부, 순창군 등지였지만, 교방이 사라진 20세기 전반기의 전통예술의 교육기관이었던 기생조합과 권변이 설립, 운영된 지역은 전주와 이리, 군산, 남원, 정읍 등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행정중심지에서 상업중심지로 전통예술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연행되는 등 대대적인 지역의 변화가 있었다. 결국 20세기 전반기의 예인들의 주요 활동지는 상업중심지였던 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고창 등지로 요약된다.

그리고 해방공간이었던 1940년 중반 권변은 해체되고 이들의 명맥은 1945년 전주국악원, 1945년 남원국악동호회, 1948년 군산국악연구회, 1948년 정읍국악원, 1955년 이리국악원으로 개원되면서 유지되었다.

V. 결론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의 전통음악계는 이전 시대인 조선후기와 다른 환경과 위치에 처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부터 천민 집단으로 지칭되었던 창부와 관기들은 신분 철폐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 속에서 전통음악을 담당하고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이 시기의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각종 전통음악은 종목별로 상세하게 논고되어 양, 질적 성과를 가져왔다. 다만 이들 음악이 상호 보완적이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라는 특정 시기와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판소리와 산조, 풍류, 농악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와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전개 양상과 의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당대의 각 종목에 집중하여 의미를 밝히는 것보다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전라북도 전통음악의 전개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생조합과 권번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글임을 미리 밝힌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기에 이어 20세기 전반기에 판소리의 명맥은 유지되었다. 이른바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근대 5명창을 박기홍·김창환·김채만·송만갑·이동백·김창룡·유성준·전도성·정정렬 등을 지칭하는 사람마다 5명이 다르게 지칭되지만, 전라북도의 명창으로 유성준, 전도성, 정정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중앙과 지역을 돌아다니면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전라북도의 판소리 유명세를 각인시킨 명창들이다. 신빙성에 논란이 있지만 근대 판소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조선창극사』는 김제 출신 정노식에 의해 이 시기에 전라북도에서 저술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향리를 지키며 활동했던 이기권은 전북판소리사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권은 정정렬에게 소리를 익혀 흥정택을 비롯하여 김유앵·강종철·김원술·최난수·성운선·이일주·홍용호·이운학·양종만 등 20세기 후반기에 활동하였던 명창을 배출한 장본인이다. 1940년 후반기에 군산으로 이주하였으며, 1941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자양성을 시작하였는데, 익산을 중심으로 군산, 정읍, 김제 등지를 두루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점과 향리에 머물며 묵묵히 자신의 소리를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에서 근대 전북 판소리사에서 명창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둘째, 전라북도 산조는 이 시기에 이르러 1세대의 확립을 거쳐 2세대들에 의해 고착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신쾌동류 거문고산

조, 편채준류 대금산조, 강백천류 대금산조, 전용선 단소산조, 유동초 통소산조 등이 전개되었다. 비록 김종기, 신쾌동, 강백천 등이 서울과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였지만, 그 뿌리는 전라북도였다. 그리고 신관용과 편채준, 전용선, 유동초 등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교육과 무대화를 이어 나갔다. 특히 신관용의 가야금산조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활동한 양상을 보이며, 경상도까지 진출하였다.

셋째, 풍류는 정읍과 고창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기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연주되면서 시기적으로 1900년대 경성 풍류의 전수, 1920년대 풍류의 부흥, 1930년대 풍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940년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1930년대 정악 부흥운동과 악보집 발간으로 정악의 쇠퇴를 극복하였던 풍류는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공연 양식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또한 이 시기의 전라북도의 풍류는 획일성보다는 지역 간 풍류객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풍류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농악은 한국의 농악을 대표하는 우도, 좌도농악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태동되고 발전하여, 정식 공연물로 안착되어 나갔다. 전라북도에서 연행되었던 농악은 우도와 좌도라는 지역적 구분도 있고 음악적 차이와 진법의 구분도 있다. 그러나 좌, 우도농악의 교섭은 1920년대 이후 이름난 농악인들이 좌도와 우도 양 지역의 농악대에서 활동하거나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였고, 좌도에서 우도로 활동 영역을 옮기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미 20세기 전반기부터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도농악의 신흥종교 보천교와 만남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농악은 1946년과 1947년 열린 전국농악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다섯째,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의 전통음악은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근대적인 신식극장에서 공연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연종목으로 정착되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신분철폐에 따라 악공과 창부들은 기생조합과 권번으로 자리를 옮기고 생활하면서 근대적인 예인들의 전통음악 발전에 노력하고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라북도 전통음악은 수많은 예인들을 통한 활동과 호남평야와 같은 풍부한 물산으로 인하여 애호가 층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갖추어지면서 20세기 후반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20세기 전반기의 전통음악을 수행했던 기생조합과 권번이 해체되고 이들의 명맥은 1945년 전주국악원, 1945년 남원국악동호회, 1948년 군산국악연구회, 1948

년 정읍국악원, 1955년 이리국악원으로 개원되면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전라북도에서 전개되었던 전통음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에 고신문을 보면, 연구범위에 나오는 종목 이외에도 가야금병창, 단가, 시조, 가곡, 양금, 거문고, 가야금, 승무, 검무, 포구락, 살풀이, 한량무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자세한 곡목을 알 수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열식으로 열거하는데 불과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잔존하는 자료를 더욱 치밀하게 발굴하고 검토하는 한편, 주변 학문 분야와의 학제적인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대적 의의에 대한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한영. 1971. 『한국민속음악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고창군지편찬위원회. 1992. 『고창군지』. 고창군: 청웅제지인쇄부.
- 권도희. 2003.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조선성악연구회와 산조.” 『산조연구』 3: 119-141.
- _____. 2005. “호남지역 근대 음악사연구”. 『한국음악연구』 38: 5-26.
- 김명곤. 1981. 『어떻게 허면 똑똑한 제자 한놈 두고 죽을꼬?』. 서울: 뿌리깊은 나무.
- 김성민. 2018. “신관용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근. 2008. 『이야기로 풀어보는 지리산 판소리』. 남원: 지리산판소리소리문화연구소.
- 김우진. 2004. “오희상금보”. 『한국학음악학자료총서』. 국립국악원 39: 113-254.
- 남상숙. 2005. “호남풍류의 전승사 및 음악적 특징-영산회상을 중심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5: 29-86.
- 노동은. 1995. 『한국근대음악사 1』. 경기:한길사.
- 문 현. 2014. “시조창의 전개와 현황”. 『시조학논총』 42: 29-68.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0. 『대금산조』.
- _____. 1973.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 _____. 1982. 『전라북도국악실태조사』.
- _____. 1987. 『산조』.
- _____. 1992. 『판소리유파』.
- 박대현. 2015. “정읍 음율계 아양계안 서지고”. 『정읍학』 2: 127-139.
- 변성금. 2009.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후대 산조의 선율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부풍유회. 1997. 『부풍유회 50년사』. 부안: 부풍유회.
- 서종문. 2011. “신재효와 근대 판소리”. 『판소리연구』 31: 5-22.
- 송방송. 2003. “한국 근대음악사의 한 양상-유성기음반의 신민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음악사연구』. 서울: 민속원.
- _____. 2003. “거문고명인 백낙준과 가야금명인 정남희”. 『한국근대음악사연구』. 서울: 민속원.
- 신은주. 2020. “전북의 소리꾼 이기권 연구”. 『판소리 연구』 49: 403-444.
- 양승희. 2001. “김창조에 관한 남북한 자료 및 문헌고찰에 의한 고증”. 『산조연구』 54-143.
- 이규리. 1987. “조선후기 외방관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원. 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전통예인 백사람』. 서울: 현암사.
- 이보형. 1975.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전통성” 『한국문화인류학』 7:

126-131.

이용구. 2015. “추산 전용선의 단소산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예원. 2020. “20세기 전반기 전북지역 풍류의 전개와 의의”. 『한국음악사학보』 65: 309-348.

이지수. 2024.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전승자별 선율 비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예술전문사논문.

이훈상. 2003. “조선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 『판소리연구』 16: 139-180.

임미선. 2003. “전북 향제풍류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사”. 『한국음악연구』 33: 97-134.

_____. 2008. 『전북의 음악. 그 신명과 멋』. 국립민속박물관.

_____. 2014. “해방공간기 전라북도 농악의 발전 양상”. 『한국음악사학보』 53: 319-342.

전라북도. 2003. 『전북의 판소리』.

_____. 2004. 『전라북도 마을 지킴이. 정악』.

_____. 2005. 『전라북도 농악. 민요. 만가』.

_____. 2006. 『전라북도 마을굿. 산조』.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2. 『정읍지역 민속예능』.

정경태. 1987. 『국악보』. 서울: 청석회.

조선총독부. 1917. 『조선전라부군면리동명칭일람』.

조법중. 2020.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 『전북사학』 60: 37-76.

조석연. 2010. “통소의 명인 유동초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국음악사학보』 45: 373-392.

최준식. 2006. “정읍과 한국의 신흥종교운동”. 『전북의 역사문화』. 국립전주박물관.

KBS 전주방송총국. 1988. 『전주방송 50주년사』.

황미연. 1994. 『신관용 가야금산조 연구』. 전주: 신아출판사.

_____. 1998. 『전북국악사』. 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_____. 2010. “전라북도 권번의 운영과 기생의 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군산신문(1949.05.06.). “군산정악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 검색일: 2025. 03. 05.

대한매일신보(1908.06.17.). “노인풍류”.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검색일: 2025.02.17.

동아일보(1925.09.27.). “천양정(穿揚亭)을 수선(修善) 사용범위(使用範圍) 확대”.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2. 16.

동아일보(1927.05.03.). “본사 신사옥 낙성을 기하야”.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2. 12.

- 동아일보(1928.08.07.). “창립기념음악”.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3. 22.
- 동아일보(1929.03.01.). “이리구악동호회”.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4. 05.
- 동아일보(1932.06.25.). “신간소개”.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2. 10.
- 동아일보(1934.02.27.). “김제군 만경청년들은 금번 구역정초 놀이를”.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3. 10.
- 동아일보(1937.09.24.). “상후리(上後里) 농악대회(農樂大會)”.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3. 03.
- 동아일보(1939. 11. 01.). “정읍정악회”.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검색일: 2025. 02. 10.
- 매일신보(1915.09.08.). “전주예기조합이 공진회에 출연”.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5. 02. 05.
- 매일신보(1917.06.17.). “...이번에 매일신보 지국 주최로”.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5. 04. 19.
- 매일신보(1931.04.23.). “전주음률연주”.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5. 03. 04.
- 매일신보(1932.09.03.). “정악구락부 창설”.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5. 02. 05.
- 매일신보(1932.09.15.). “전주-정악구락부 창설”.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5. 03. 08.
- 시대일보(1924.06.10.). “군산예기권번 설립”.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검색일: 2025. 04. 08.
- 조선일보(1926.08.10.). “전아(典雅)한풍류성(風流聲)”. <https://newslibrary.chosun.com>. 검색일: 2025. 03. 17.
- 중외일보(1928.08.20.). “정읍의 예기조합”.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검색일: 2025. 04. 11.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L/contents/N20200000000.do>. 검색일: 2025. 02. 10.
-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검색일: 2025.02.27.
-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리. <https://newslibrary.chosun.com/>. 검색일: 2025.02.27.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in
Jeollabuk-do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 Focusing on Pansori, Sanjo, Pungnyu, and Nongak**

Hwang, Mi-Yeo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ert
committe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Pansori, Sanjo, Pungnyu, and Nongak in the Jeollabuk-do provinc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Rather than focusing on each genre of the period to define its significance,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macroscopic view of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in Jeollabuk-do during this peri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and it focuses on the Gisaeng Association and Gwonbe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mong the five modern master singers activ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ose from Jeollabuk-do were Yu Seong-jun, Jeon Do-seong, and Jeong Jeong-ryeol. In particular, Lee Gi-gwon, who was mostly active in his hometown, learned singing from Jeong Jeong-ryeol and was the main person responsible for producing numerous master singers including Hong Jeong-taek. He was a person who stayed in his hometown and quietly tried to pass down his singing, and he left a great mark in the history of modern Jeollabuk-do Pansori not only as a master singer but also as an educator. And Sanjo tended to spread through the second generation after being established by the first generation, and the categories included Kim Jong-gi-style Gayageum Sanjo, Shin Gwan-yong-style Gayageum Sanjo, Shin Kwae-dong-style Geomungo Sanjo, Pyeon Jae-jun-style Daegeum Sanjo, Kang Baek-cheon-style Daegeum Sanjo, Jeon Yong-seon Piri Sanjo, and Yu Dong-cho Tungso Sanjo.

Pungnyu was actively performed by professionals, non-professionals, and Gisaengs, centered around Jeongeup and Gochang, and can be summarized as the transmission of Gyeongseong Pungnyu in the 1900s, the revival of Pungnyu in the 1920s, efforts to overcome the Pungnyu crisis in the 1930s, and its spread to the regions in the 1940s. Nongak was born and developed around Jeollabuk-do as Udo Nongak and Jwado Nongak, which represent Korean Nongak, and became established as formal performance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raditional music of Jeollabuk-do was adopted as a curriculum in Gisaeng Association and Gwonbeons and was performed in modern new-style theaters, contributing to its popularization as a performance genre for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with the abolition of social status, musicians and Gisaengs moved to the Gisaeng Association and Gwonbeon and began to be evaluated as they worked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by modern entertainers. Therefore, traditional music of Jeollabuk-do during this period was able to maintain its reputation until the late 20th century, as the supply and demand for its music was met by a growing number of enthusiasts due to the activities of numerous entertainers and the abundance of resources such as the Honam Plains.

■ Keywords: Jeollabuk-do, Pansori, Pungnyu, Sanjo, Nongak